7월 청년고용 개선과 물가불안 지속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1년 7월 취업자 수 증가, 고용률 상승,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며, 특히 청년층 고용여건도 개선됨.

-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3만 5,000명 증가하면서 30만 명 이상 취업자 수 증가가 2010년 10월 이후 계속되었으며, 고용률은 60.0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상승하였고, 실업률은 3.3%로 0.4%p 하락함.
- 특히, 청년 고용률이 42.0%로 전년동월대비 0.1%p 상승하고, 청년 실업률이 7.6%로 0.9%p 하락하였으며, 이와 같은 청년 고용여건 개선으로 주취업 연령층인 25~29세 고용률이 2.6%p 상승한 71.0%로 나타남.

■ 반면, 7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.5% 상승하였으며, 소비자물가도 4.7% 상승하여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.

- 7월 생산자물가의 경우 농림수산품 가격이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채소류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2.1% 상승하였고, 공산품 가격은 원자재가격 상승이 종이제품, 전기 장비, 음식료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7.9% 상승함.
- 7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식료품 · 비주류음료가 10.0%, 기타잡비가 5.6%, 주거 및 수도 · 광열이 5.2% 상승함.

■ 기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었으나, 대외 불안요인 확대로 인하여 기준금리가 8월 11일 현 수준인 3.25%로 동결됨.

- 미국 등 주요국 경제의 둔화 지속 가능성, 유럽지역 국가채무 문제 확산,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면서 주가 및 장기시장금리 하락, 환율 상승 등이 나타난 가운데, 8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3.25%로 동결함.

(7월 고용동향 등, 통계청, 8/10)